

# 보도자료

보도 희망일	즉 시		
배포일	2020. 12. 13.(수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(880-9072, 5054)
담당기관	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산학협력팀	문의	이정일 (033-339-5662)

투자시장 위축으로 위협받는 스타트업 대표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서울대학교와 나눔엔젤스가 나섰다.

## -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과 나눔엔젤스 업무협약 체결

-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(원장 임정빈, 이하 ‘GBST’)은 12월 18일(월) 서울대에서 나눔엔젤스(대표 엄철현)와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.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고도의 스트레스에 놓인 창업자들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관리하고,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최근 글로벌 금리상승과 경기침체로 투자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유명 스타트업까지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. 이에 평창을 기반으로 교육관광 및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GBST 웰니스융합센터와 스타트업 대표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나눔엔젤스가 힘을 합쳤다.
- GBST 웰니스융합센터는 고도의 스트레스와 격무를 겪는 창업가들에게 맞춤형 건강 식단과 디지털헬스케어를 도입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평창의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해 스트레스 완화 및 창업가들의 역량강화를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. 한편, 초기 스타트업 전문투자사인 나눔엔젤스는 강원도 및 타 지역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리더의 스트레스 관리, 전문가 연계를 통한 기업의 성

장을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임정빈 GBST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“나눔엔젤스와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“창업가들은 평창에서 심리적 지지를 얻고, 지역에서는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상생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□ 또한 본 협력사업을 주도할 GBST 웰니스융합센터 이기원 센터장은 “이번 협력사업은 지역에 기반한 기업연계형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